



# FTA FOCUS

2023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E REPORT

# 2023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올해도 여전히 국제정세와 세계경기 모두 불확실성과 어두운 전망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관세외교 분야에서는 <Korea Customs Week 2023>의 성공적인 개최, 베트남·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마약 유통 차단 및 글로벌 단속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무역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오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세청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제협력 채널과 관세외교 역량을 쏟아 부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1 들어가며

지난해 국제사회를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년을 맞았지만 종전(終戰)과 화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냉전(冷戰)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현실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금방이라도 회복될 것 같던 세계경제도 러-우 전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 등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다툼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붕괴를 겪으며 장기 침체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나 한국은행(1.7%) 보다도 낮은 1.6%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 한국경제가 경기둔화 단계에 있음을 공식 진단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1.6%는 1980년 제2차 오일쇼크(-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0.7%) 등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네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국민들의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관세행정 분야, 특히 FTA 및 국제협력 업무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긴 침잠(沈潛)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FTA협상, 양자 및 다자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만큼 '수출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최우선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제도와 전자통관기술력을 전세계에 선보이게 될 <Korea Customs Week 2023> 행사를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베트남·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번 지면을 빌어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보고 2023년 FTA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 2022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22.2.1.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메가 FTA인 RCEP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인천·평택 등 전국 6개 주요 거점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764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을 지원하고, 간이인증제도 운영 등 한발 앞선 개선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1,613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을 255개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장기간 끌어 온 베트남, 인도와의 EODES 구축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베트남과는 2022.10월 EODES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올 상반기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로 양국간 합의하였고, 인도와도 총 7차례 공식협상과 수십 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거쳐 2022.8월 기술 및 절차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모두 합의하고 9월 개최된 한-인도 관세청장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전면 개통하기로 양국이 최종 합의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개도국과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검증 분야에서는 국민건강·생활안전 및 新산업분야 테마 검증을 통해 EU산 전기자동차 등 FTA 특혜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163개 기업에 대해 특혜적용을 배제하고 약 184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공정한 FTA 무역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급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우회수입을 조기에 적발 차단함으로써 우리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EODES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해서는 미국·인도 등 7개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역대 최다(最多)인 75개국과의 고위급 양자면담, 관세당국간 핫라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 및 현지진출기업이 겪고 있던 통관 애로 132건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 및 물류비용 567억원 상당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관세청 최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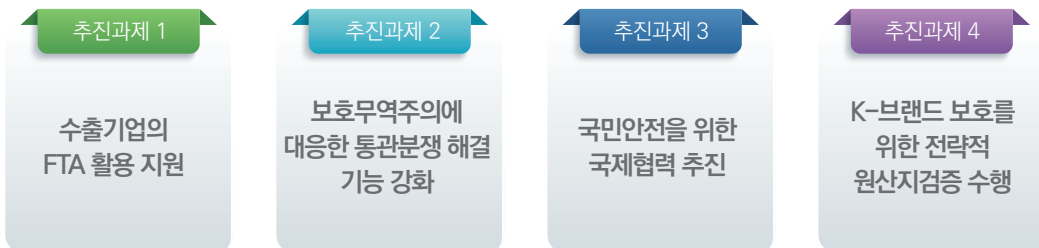
세계관세기구(WCO) 고위직 배출을 목표로 도전한 사무차장 선거에서 전청적인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단 2표 차이로 석패한 것은 지금까지도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중동지역을 포함한 80여 개 국가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우리에게 큰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위안을 삼고자 한다.

### 3 2023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추진방향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더 많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세행정 상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세계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류에 대응

하여 해외통관분쟁 해소를 위한 제반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2023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먼저, 각 본부 및 직속세관에 가칭 <수출확대·경제활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업종별 전담 세관을 기존 본부세관에서 권역내 세관까지 확대하여 섬유, 기계류 등 원산지요건 충족이 어려워 FTA 활용이 쉽지 않은 취약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출초보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금융과 연계하여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출기업의 검증대응 및 인증수출사 취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산업부 및 중기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농림부·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농수산물 가공품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관에 사전등록된 생산자의 한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유통업체에도 C/O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FTA 활용수출 촉진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GCC, MERCOSUR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에서 인증수출자 C/O 자율발급, e-C/O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한단계 더 고도화하고, 협정별 FTA활용률 및 품목별 특혜정보 등 관세청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산업협회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 2.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통관분쟁 해결 기능 강화

올해 관세청은 최신 글로벌 관세 이슈와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최대규모 국제 행사인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에는 관세청장회의나 정책 세미나 외에도 G2B 미팅, 관세기술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만남과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통관애로 예방과 해소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향후 수년 내에는 관세협력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관애로 대응이 관세관 파견국 위주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CS Attach Club>을 만들어 한국주재 해외 관세관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은 국가의 관세제도 및 주요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넓히고자 한다.

또한, ADB 등 지역개발은행과 연계하여 통관애로 빈번국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공적개발 원조(ODA) 제공으로 상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친한파를 육성하는 등 통관분쟁 예방부터 해소까지 선순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전략도 구상 중에 있다.

국제협력분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어학에 재능있는 20~30대 MZ 세대를 향후 3년간 20~30명 까지 국제협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가칭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들 인재들이 국제 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통관분쟁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3. 국민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마약·외환 등 불법행위 단속 관련 국제공조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마약 정보관 파견 및 정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단속기법과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등 국가간 위험관리를 위한 관세 당국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총기·마약류의 유통 등 위험관리를 위해 세관신고서에 <전자상거래물품

부호>를 신설하고, 캄보디아·태국 등 마약류 반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는 세관 상호지원협정(CMAA)을 체결하여 밀수동향 및 단속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출입 데이터의 국가간 교환 활성화를 위한 자료교환 표준안 마련을 WCO와 협력 사업으로 공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4.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원산지검증 수행

원산지검증 분야는 <농수축산물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 및 우범 해외공급자 DB 구축 등을 통해 세율차가 크고 수입량 증가 폭이 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물품에 대한 기획검증을 통해 K-브랜드 및 新성장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농림부의 관세철폐국가 및 인접국의 생산량·가격 현지조사 정보,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생 정보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과학적데이터를 정보분석 단계에서부터 적극 활용함으로써 검증 기법을 한차원 더 고도화하고 불복에

대비한 입증자료의 객관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체약상대국의 주요 수출검증 요청사유·품목·검증결과 등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FTA 포털>에 공유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수입검증 결과 합리적 의심이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4 맺음말

올해도 여전히 국제정세와 세계경기 모두 불확실성과 어두운 전망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관세외교 분야에서는 <Korea Customs Week 2023>의 성공적인 개최, 베트남·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마약 유통 차단 및 글로벌 단속망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무역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오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세청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제협력 채널과 관세외교 역량을 쏟아 부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